

결혼이주여성들의 여가활동 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지속가능한 문화융합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인본주의적 가치실현의 전망 -

민웅기** · 김상학***

< 차례 >

1. 서론
2. 이론적 논의
 - 2.1. 여가의 개념적 고찰:
'여가-노동' 과의 관계분석을 통한 여가 유형의 범주화
 - 2.2. 여가관여도, 여가동기 관련 선행연구 및
결혼이주여성 여가연구의 필요성
3. 연구방법
 - 3.1. 자료수집,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 3.2. 변수 및 측정문항 구성
4. 분석결과
 - 4.1. 조사대상자의 특성
 - 4.2. 결혼이주여성의 여가활동 관여도와 여가동기 및
여가만족도와의 관계
5. 결론 및 연구의 함의: 지속가능한 문화융합사회의 정착 가능성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3A2065967).

본 연구는 '한국관광연구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 및 학술 심포지엄(2018)'의 발표 자료를 기초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함.

** 목원대학교, sunppk@mokwon.ac.kr

*** (교신저자) 한양대학교, sanghag@hanyang.ac.kr

1. 서론

최근 한국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다문화 이주민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현상은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온 단일민족이라는 국가가 지닌 정체성에 크고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른바 다문화사회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문화주의란 한 사회 내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면서 공존하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이념 체계 및 정책, 프로그램을 총칭하여 일컫는다(윤인진, 2008). 한 국가에서 나타나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단편적으로 다른 민족이 국내로 유입되어 사회구성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변화가 야기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또한 더 나아가 기존 구성원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계층, 문화, 빈곤, 복지, 노동, 여가 등 여러 가지 생활 범주의 파편화 및 통합화 과정이 동시에 나타나게 됨을 뜻하기도 한다(Gorz, 1982). 이 같은 현상으로 말미암아 거시적 사회구조의 전반적인 변용(變容)은 물론 구성원들의 사회화(socialization) 과정에서 사람들 각자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는 매우 역동적이며 개방적인 문화접변(acculturation) 현상으로써 이미 우리 삶의 영역에 깊숙하게 침투하고 있다.

상술한 사회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 사회 내 생활 문화권에서 외현되고 있는 거시적인 다문화질서이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총체적으로 분석, 예측, 대비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에서 그 구조적인 질서를 하나씩 밝히는 과정에 참여하게 됨을 의미한다. 주지하다시피 다문화사회로의 전개는 여러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중 특히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가족의 대표적인 특징은 아시아(Asia) 지역 중심의 개발도상국에서 출생

하고 성장한 여성들이 혼인을 통해 국내로 이주하게 되는 유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새로운 문화 유입은 다문화를 이루는 가족 구성원들의 의사소통 질서를 변화시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생활양식이 정착되는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일치된 공동체 생활권으로서 함께 거주하면서 삶을 공유하고 있었던 기존 내국인들은 이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경험을 통해 그들의 삶이 변화함을 느끼게 된다(김은미·양옥경·이혜영, 2009).

한편 이 거시적 사회변화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사회구성원 개인의 심리 구조, 행위 특성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다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 전체의 문화는 물론, 그 개별 구성원들 각각의 자아상과 정체성 역시 더 복잡한 양태로 융합되기 시작했다. 최근 한국사회의 구조적 특징을 논의함에 있어서 ‘문화융합’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게 된 것 역시 이 같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주의 깊게 논의해야 할 분석 범주 중 하나는 비단 전술한 거시적인 사회질서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사회공공성 측면에서의 일상생활(everyday life)은 한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과 연관되기도 한다. 그들은 바뀐 생활환경 속에서 적응 문제가 발생하여 일상의 미시적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크게 ‘노동과 여가’의 두 영역으로 범주화할 때, 그 각각의 영역에서 다문화가족을 구성하는 사회구성원들은 기존 내국인들로만 구성된 가족보다 많은 사회적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민웅기·김상학, 2014).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재 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차별기제는 물론, 그들은 사적 삶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여가(leisure)영역’에서도 수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사회 내에서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으로부터 결혼

을 통해 이주한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은 한국 남성과 가족을 이룬 뒤에도 일상생활에서 여러 제약을 받기도 한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 체계의 질서 중 가족 내의 권력 관계에 대한 세분화된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사회에서 혼인 후에 겪게 되는 다양한 이질적 사회문화들은 이주여성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칫 사회적 약자로의 그들 지위가 고착되기 쉬운 결혼이주여성들의 사적 생활양식에 대한 연구는 인본주의적 가치와 인간의 삶의 본원적 의미를 고찰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이제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학습할 수 있는 시민교육이 그러한 삶의 가치를 토대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연계되어야 한다(김우진, 2016).

그 중 사적 생활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여가활동에 대해 결혼이주여성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외현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지속가능한 문화융합사회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도모하고, 사회통합 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논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여가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은 어떤 관여를 하게 되며, 그 심리적 기제 간 관계들이 그들 삶의 만족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인간 실존의 본질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에서 시작된다. 이질적 문화소통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이한 사회구성원의 자아 및 사회 정체성에 대한 고찰 과정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어떤 정책적 기제들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문제로 그 논의 수준을 확장시킬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여가활동의 본원적 특성을 기존의 ‘노동-여가’의 관계 속에서 논의된 현대 여가문화이론에 적용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고, 그들 여가의 특징에 내재된 사회문화적 함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삶의 활동영역을 구성하는 주요 두 범주

인 여가와 노동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Parker, 1983; Champoux, 1978; Willensky, 1960)를 근거로 실제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여가활동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문화융합 사회로의 안정적인 진입을 위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필요한 여가 관련 이론 적용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여가활동에 내재된 특징에 대해서 사회심리학적 논의에 근거한 연구(Blair, 2001; Taifel, 1978; Wyer, 2004)들을 적용하여 계량분석을 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 탐색적 분석과정을 통해 사회 소수자들의 노동과 여가라는 구분된 삶의 영역 간 소통 과정의 본질을 고찰함으로써 추후 결혼이주여성들의 여가활동과 관련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2.1. 여가의 개념적 고찰: ‘여가노동’과의 관계분석을 통한 여가 유형의 범주화

여가(leisure)의 개념을 학술적으로 간명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일상생활 영역에서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여가 개념이 이미 복합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어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념적 정의를 내리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하게 범주화하면 크게 시간적 개념, 활동적 개념, 그리고 주관적인 개념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생활시간 중 노동시간과 생리적 시간을 제외한 잔여시간으로 간주하는 범주 개념(Kraus, 1971), 사회적 의무로부터 해방되어 자발적 참여로 참여하는 활동 개념(Dumazedier, 1967), 그리고 여가행위

자의 주체적인 심리적 여가인식과정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 것이다(김외숙·조희금·두경자, 2000; 민웅기, 2002; Pieper, 1952). 여가는 이들 개념들을 함께 수렴한 여가의 포괄적 의미인 ‘개인이 노동이나 그 밖의 의무로부터 자유롭고, 휴식, 기분전환, 사회적 성취, 개인적 발전을 위한 목적에 활용되는 시간’의 개념으로 연구되기도 했다(Gist & Fava, 1964).

과거부터 여가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했다. 전통사회에서는 노동과 여가가 상반되는 범주로 인식되었으며, 사회적 계급 분화의 형태로 통치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사회이데올로기로 이용되기도 했다. 그 이후 근대사회를 거치면서 노동을 통한 생산성과 그 노동을 통한 소명의식이 개신교 윤리와 연계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가의 가치가 노동에 비하여 평가절하 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그러던 중 최근 정보사회를 맞이하여서는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보급되면서 시간이 자원화되고, 여가를 자본으로 거래하는 본격적인 대중소비사회가 도래하게 되었다(김문경, 1993; 김외숙·조희금·두경자, 2000; 민웅기, 2002). 이제 다시 여가의 중요한 삶의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재고(再考)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여가는 노동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개념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일찍이 파커(Parker)는 여가와 노동의 관계를 세 가지로 구분했다. 개인들의 삶에 있어서 노동과 여가 활동이 유사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확장유형(extension pattern), 노동과 여가의 관계에 대해서 구분한 대립유형(opposition pattern), 노동과 여가와 관계의 구분을 하지 않고 대립관계에 놓지도 않은 중립유형(neutrality pattern)으로 범주화했다(Parker, 1983). 또한 윌렌스키(Willensky)는 노동과 여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두 개념이 서로 영향을 받는 상호침투(spill over)모델과 여가가 노동에서의 박탈에 대

한 만족을 가져온다는 보상(compensatory) 모델로 그 관계를 설정했다. 여러 가지 이론적 논의 중 특히 주목해 봐야 할 내용은, 상호침투 모델의 관점 중 노동에서 박탈감을 당한 사람은 여가 영역에서도 그 과정이 반복된다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Willensky, 1960). 한편 이와 유사하게 챔푹스(Champoux)는 노동과 비(非)노동 개념에 자아의 개념을 포함하여 네 가지 인성 유형을 분류하기도 했다. 자아개념이 노동경험에서 일체감을 느끼는 개인이 향유하는 원리인 상호침투노동지향적 유형(spillover work oriented), 자아개념이 비노동경험에서 일체감을 느끼는 상호침투비노동지향적 유형(spillover non-work oriented), 노동에 관심을 갖고 여가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보상적 노동지향성 유형(compensatory work oriented), 비노동활동에 자극을 느끼고 노동은 단지 수단으로 여기는 보상적 비노동지향성 유형(compensatory non-work oriented)이 그것이다(Champoux, 1978). 사회구성원들은 노동과 여가와의 관계 속에서 상충한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의 인성 유형을 주로 지니게 된다는 것이 이 이론의 주요 내용이다.

이상 살펴본 여가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들의 전제는 노동과 여가의 관계가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상호의존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그 관계가 서로 명확하게 상대적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Parker, 1983). 더불어 현재 그 각각의 개념이 단지 독립적으로만 존재하지는 않고,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화 속에서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사회적으로 '융합'적으로 '구성'되고 있다. 노동 못지않게 사람들이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여가는 이미 산업화 과정에서 그 가치가 본격적으로 구체화되어 온 다차원적 사회적 실재라 할 수 있다.

여가라는 사회 구성물 속에서는 많은 생활기회, 물리적 자원, 시장 능력, 기술수준, 계급, 권력 등 유무형의 문화적 속성이 내포되어 있

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자본주의적 사회질서에서 이루어지는 융합 문화적 생활양식의 메커니즘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야만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개념으로 굳게 믿고 있는 상대적 자율성의 근원적 의미에 대한 환상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Anderson, 1983). 이 같은 맥락에서 일부 사회과학자들은 여가기회와 자원, 소유관계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이를 소비자본주의가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Adorno & Horkheimer, 1979). 더 나아가 여기는 자유시간이 아니며,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일종의 시간 조직화의 결과라고 논하기도 한다(Frith, 1983).

이 같은 맥락에서 산업사회의 여가특징에 대해 갓비(Godbey)가 논의한 ‘반여가(anti-leisure)’ 개념은 주목해야 한다. 반여가는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써 외부적인 제한 속에서 시간에 대한 높은 의식과 최소한의 개인적 자율 하에 강제적으로 수행되는 여가활동’을 의미한다(Godbey, 1975).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 중 특히 사회계층의 층위 질서에서 그 지위가 낮을 경우, 이 반여가활동에서 자유롭기는 쉽지 않다. 한편 갓비의 논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탈산업사회에서의 노동과 여가활동의 특성에 관해서 연구한 학자인 고르(Gorz)의 연구 역시 흥미롭다. 그는 삶의 영역을 개인의 삶을 자발성과 사회성이 결합하여 그 관계들로 구성되는 타율적 영역과 개인의 자기결정을 통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자율성 영역으로 범주화했다(Gorz, 1982). 현재 이 각각의 삶의 영역은 탈산업사회에서 재구조화되고 있다. 노동과 여가 영역은 각각의 삶의 영역에 융합적으로 포함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노동 및 여가와 관련한 기존 이론적 논의들은 우리에게 사회구성원들의 생활에서 노동과 여가의 관계가 그들 의식과 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만족하는 여가활동은 단순히 노동의 반대 개념으로 나타나는 활동이 아니며, 실제 일상의 노동활동과 연계되는 복잡한 양상을 지니고 있다. 이 같은 특징과 함께 고민해보아야 할 사항은 과연 그들의 여가활동이 노동과 관련한 어떤 특정 동기와 매개되는지, 또는 매개되지 않는지, 그리고 그 관계의 본질이 실제 그들의 여가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여가 역시 상술한 이론적 내용을 적용하여 분석해보아야 한다. 그들의 여가활동의 특징은 많은 사회문화적 변수를 통해 구현되며, 이에 대한 해석 역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2. 여가관여도, 여가동기 관련 선행연구 및 결혼이주여성 여가연구의 필요성

지금까지 여가와 관련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특히 양적 연구의 과정에서 진행된 계량분석들에서는 수많은 사회심리학적 변수가 분석과정에 적용되어 왔다. 그 중에서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변수 간 관계는 여가관여도, 여가동기, 여가만족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다.

여가관여도는 관여도의 개념을 다차원적으로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관여도(involveement)는 ‘특별한 상황에 의해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동기, 자극 혹은 관심의 상태’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Rothschild, 1984). 이 관여도의 다차원적 개념은 개인 내면에서 특정 동기를 유발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의 욕구가 중요하게 지각되어 나타나게 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형성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Celsi & Olson, 1988). 한편 여가관여도는 여가활동, 또는 레크리에이션 상황

에서 특정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개인의 관련성 또는 중요성의 정도를 나타낸다(Antil, 1984). 지금까지 많은 여가문화 연구자들은 여가관여도를 개념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서 여가관여도가 여가활동을 원하는 사회구성원들의 지속적 참여를 위한 그들 의사결정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다(Dimanche, Havitz & Howard, 1991; Havitz & Dimanche, 1999; Kerstetter & Kovich, 1997; Kyle & Chick, 2002; Laurent & Kapferer, 1985). 즉 여가관여도는 어떤 행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며, 그 행동을 위한 동기부여적 태도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로 운영된다(Mannell, 1993). 또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동기, 행동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여가행동연구의 주요 변수로 연구되고 있다(조명환, 1990; 하지연, 2005; 황재연·한우진, 2004; Iwasaki & Havitz, 1998).

지금까지 여가관여도 및 여가동기의 관계에 관한 연구와 여가 참여의 관계 규명을 위한 논의 역시 지속되어 왔다(Celsi & Olson, 1988; Havitz & Dimanche, 1999; Hubbard & Mannell, 2001). 능동적인 여가참여자의 경우, 그들의 여가참여는 개인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여가관여도가 사람들의 의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한편 여가관여도, 여가 동기 변수와 함께 분석을 위한 관련 변수로 개념화된 여가만족도는 ‘여가 참여 및 선택의 결과로서 얻어지거나 형성되는 개인적인 느낌이나 긍정적인 인지 정도’를 의미하며, 개인의 일반적인 여가경험과 상황에서 형성되는 감정의 정도를 뜻한다(Beard & Ragheb, 1980). 이 여가만족은 최종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도 한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여가행동 연구에서 여가동기의 역할은 그 자체의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을 연구하기보다 대부분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여가 효용이나 분류 체계의 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

던 것이 사실이다(김기영, 2001; 김선영·장병주·이준, 2007; 김외숙·이기춘, 1992; 이유리·박미석, 2006; 채선애·한성열, 2002). 따라서 어떤 행위자가 자신의 여가관여도와 이것을 통해 얻게 되는 여가동기 때문에 의식이나 행동의 변화가 나타났다면, 그 결과가 사회정책 구현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현 시점에서 한국사회의 결혼이주여성 여가 만족도 연구를 여가관여도와 여가동기 등의 관계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그 분석결과가 한국 내 이주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큰 두 가지 영역인 ‘개인적 선택’과 ‘사회구조적 압력’이라는 두 변수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여가 연구에서는 주로 언어, 차별, 편견과 같은 다양한 여가활동 제약 요인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찰이 진행되어 왔으며, 그들에게 주어진 여가제약을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으로 나누고, 그 상호작용에 관해서 언급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만웅기·김상학, 2014; Godbey, Crawford & Shen, 2010). 그런데 이 연구들은 실제 그들이 실천하는 여가활동의 어떠한 측면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거시적 사회구조와 연계시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여가활동을 개인이 위치한 사회적 구조와 문화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 사회현상이라고 논의한 연구(Shinew, Floyd & Parry, 2004), 여가 및 언어의 제약, 주류 계층과의 상호작용과 관계에 대해 분석한 연구(Stodolska, 1998) 등이 있었지만, 분석결과를 통해 통상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구성원 개인의 여가 참여는 그들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원책 마련 및 의사소통능력 배양과정과 문화적응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alker, Halpenny & Deng, 2011). 사회적 차별기제에 노출되기 쉬운 구성원의 주요 인

구통계학적 특성은 낮은 사회계층, 여성, 장애인, 해외에서 유입된 저발전 국가의 이문화(異文化) 민족으로 규정되기 쉽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이들은 원래 지닌 본원적 성향과 달리 여러 가지 부정적 의미의 고정관념, 편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현재 한국사회의 결혼이주여성 역시 대부분 중하위 사회계층에 존재하고 있으며, 젠더(gender) 불평등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사회불평등에 산재해 있는 사회적 배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문화융합사회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생활양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정책 및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사회공문화 과정이 요구된다.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여성 이주자의 여가활동의 특징을 분석하는 과정은 그들의 사회 불평등 기제의 정도를 줄이고,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게 도와줄 수 있으며, 문화적응을 통한 그들 생활만족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사회적 관용도를 높이는데 실질적인 기능을 이행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여가활동 특징을 탐색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추후 이문화(異文化)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입각한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구성하

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월 15일까지 이루어졌다. 조사방법은 연구자가 다문화센터를 방문하여 질문지 응답을 받아내는 설문조사법을 실시했으며, 표본추출방법은 임의표집법을 이용했다. 설문조사 과정에서 총 227부를 수집하여 그 중 분석에 적합한 217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추출 데이터는 SPSS ver 20.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고, 연구모형의 검정을 실시했다. 측정문항의 신뢰도 검정을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했으며, 여가활동에 대한 주요 가치인 관여도가 옥외 여가활동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함과 동시에 여가활동을 하게 되는 다양한 여가동기 변수와의 관계를 통해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고찰했다.

3.2. 변수 및 측정문항 구성

본 연구에서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항목들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여가 관여도의 측정항목은 선행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통해 5점 리커트(Likert) 척도를 이용해 5개의 항목으로 범주화했으며, 여가 동기의 가능성취적 동기에 대한 항목은 4개, 사회관계적 동기는 3개, 감각적 동기 역시 3개로 구성하였다.

<표 1> 설문항목

항목		개수	참고문헌
여가관여도	중요성, 능력, 즐거움, 생활중심성, 자기표현	5	박세혁(2009), 윤재연·박종서(2013), Dimanche, Havitz & Howard(1991), McIntyre & Pigram(1992), Havitz & Dimanche(1997), Iwasaki & Havitz(1998)

여가활동의 가능성취적 동기	시간활용, 기술연마, 지식획득, 시설 이용	4	정규업·이창호(1998), Beard & Raghed (1980), Deci & Ryan(1985), Vallerand & Bissonnette(1992)
여가활동의 사회관계적 동기	친밀감 증대, 대화, 동료들과의 화합	3	
여가활동의 감각적 동기	신체적인 휴식, 기분전환, 즐거움	3	
여가만족도	옥외여가활동에 대한 만족 수준	1	김성혁·김용일·채의용(2012), 박병직·김성혁·김용일(2013), Beard & Regheb (1980)
응답자 특성	교육수준, 배우자의 교육수준, 월가구소득	3	
총 문항 수		19	

각 항목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여가관여도의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alpha=0.823$ 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근거로 문항의 평균값을 통해 여가활동의 관여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를 구성했다. 한편 여가활동의 가능성취적 동기에 대한 변수들의 신뢰도 계수는 $\alpha=0.812$, 대인관계를 위한 사회관계적 여가동기 변수들의 신뢰도 계수는 $\alpha=0.836$, 감각적 여가활동 동기에 대한 변수들의 신뢰도 계수는 $\alpha=0.803$ 으로 나타났으며 각 항목들은 대푯값인 문항 간 평균값으로 변수화시켰다. 여가만족도의 경우, 옥내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여가활동(indoor leisure)인 TV 시청, 잠자기, 휴식 등의 수동적 활동에 대한 변수 측정이 분석과정에서 진행될 경우,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의미의 여가만족도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연구자의 판단으로 옥외여가활동(outdoor leisure)에 대한 만족 정도를 질문하여 그 응답 문항을 여가만족도의 주요 변수로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4. 분석결과

4.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표본추출한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면 국내 이주 여성들의 유효응답자 중 주로 국내 이주 전 국적이 중국, 베트남 등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는 30대 미만이 43.3%, 30세 이상~40대 미만이 39.6%, 40대 이상 50대 미만이 13.8% 등으로 나타났다.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수(명)	비율(%)
국적	중국(조선족)	25	11.5
	중국(한족, 기타 민족)	61	28.1
	베트남	85	39.2
	필리핀	25	11.5
	일본, 대만, 몽골,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기 타	20	9.4
연령	20대 이하	94	43.3
	30대	86	39.6
	40대	30	13.8
	50대	1	.5
월평균 가구 수입	50만 원 미만	11	5.4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28	12.9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57	26.3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68	31.3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23	10.6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9	4.1
교육수 준	500만 원 이상	6	2.8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	5.7
	중학교 졸업	51	23.5
	고등학교 졸업	84	38.7
	대학교 졸업	56	25.8
	대학원 졸업	7	3.2

4.2. 결혼이주여성의 여가활동 관여도와 여가동기 및 여가만족도와의 관계

4.2.1. 가설 검정 및 분석결과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여가관여도, 기능성취적 여가동기, 대인관계적 여가동기, 감각적 여가 동기와 여가만족도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의 통계적 검정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를 고찰하면 <표 3>과 같다. <표 3>의 <Model 1>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관여정도는 여가만족도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721$, $SE=.235$, $p<.01$). 한편 <표 3>의 <Model 2>에서 볼 수 있듯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관여정도가 여가활동을 하는 기능성취적 동기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655$, $SE=.071$, $p<.01$).

그런데, <표 3>의 <Model 3>에 나타난 검정과정을 통해 새롭게 의미 있는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여가활동을 하는 기능성취적 동기를 통제한 후, 여가활동에 대한 관여도가 여가만족도에 어떤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정해보니, <표 3>의 <Model 1>에서 나타난 여가활동에 대한 관여정도와 여가만족도 사이의 영향 관계와는 다른 분석결과를 얻게 되었다. 앞서 <표 3>의 <Model 1>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관여정도가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Model 3>에서와 같이 여가활동을 하는 기능성취적 동기를 통제하여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함께 살펴보면, 여가활동에 대한 관여정도가 여가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여가활동을 하는 기능성취적 동기를 완전매개하여 여가만족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B=.535$, $SE=.242$, $p<.05$). 가구소득 역시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즉 결혼이주여성들의 여가활동 중요성에 대한 주요 가치인 관여도는 여가활동의 주요 동기인 기능성취적 동기를 매개하여야만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결혼이주여성의 여가 관여도와 기능성취적 동기 및 여가만족도와의 관계

변수		B	SE	β	t	
Model 1	여가활동에 대한 관여도가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여가만족도)	교육수준	-586**	0.151	-.279	-3.891
		배우자의 교육수준	-.032	.137	-.016	-.233
		가구소득	.240*	.104	.163	2.298
		여가활동에 대한 관여도	.721**	.235	.212	3.071
Model 2	여가활동에 대한 관여도가 여가활동을 하는 기능성취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여가활동에 대한 기능성취적 동기)	교육수준	-.086	.046	-.118	-1.875
		배우자의 교육수준	.055	.041	.082	1.336
		가구소득	.045	.032	.090	1.427
		여가활동에 대한 관여도	.655**	.071	.553	9.055
Model 3	여가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여도가 여가활동을 하는 기능성취적 동기를 매개로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여가만족도)	교육수준	-.540**	.151	-.257	-3.582
		배우자의 교육수준	-.064	.136	-.033	-.471
		가구소득	.217*	.104	.148	2.085
		여가활동의 기능성취적 동기	.535*	.242	.184	2.213
		여가활동에 대한 관여도	.372	.280	.110	1.328

*p<.05, **p<.01

한편 여가활동의 다른 동기인 대인관계적 여가동기 및 감각적 여가동기와 여가만족도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의 통계적 검정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4〉, 〈표 5〉와 같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다문화 이주여성들의 대인관계적 여가활동 동기는 여가만

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표 5>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역시 감각적 여가활동 동기 역시 여가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결혼이주여성의 여가 관여도와 사회적 대인관계 동기 및 여가만족도와의 관계

변수		B	SE	β	t	
Model 1	여가활동에 대한 관여도가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여가만족도)	교육수준	-586**	0.151	-.279	-3.891
		배우자의 교육수준	-.032	.137	-.016	-.233
		가구소득	.240*	.104	.163	2.298
		여가활동에 대한 관여도	.721**	.235	.212	3.071
Model 2	여가활동에 대한 관여도가 여가활동을 하는 사회적 대인관계 동기에 미치는 영향(#종속변수: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적 대인관계 동기)	교육수준	-.080	.046	-.114	-1.730
		배우자의 교육수준	-.024	.042	-.036	-.569
		가구소득	.035	.032	.071	1.086
		여가활동에 대한 관여도	.565**	.072	.496	7.810
Model 3	여가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여도가 여가활동을 하는 사회적 대인관계 동기를 매개로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종속변수: 여가만족도)	교육수준	-.555**	.151	-.264	-3.670
		배우자의 교육수준	-.022	.136	-.011	-.164
		가구소득	.226*	.104	.154	2.170
		여가활동의 사회적 대인관계 동기	.391	.238	.131	1.643
	여가활동에 대한 관여도	.500	.270	.147	1.854	

*p<.05, **p<.01

〈표 5〉 결혼이주여성의 여가 관여도와 감각적 동기 및 여가만족도와와의 관계

변수		B	SE	β	t	
Model 1	여가활동에 대한 관여정도가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종속변수: 여가만족도	교육수준	-586**	0.151	-.279	-3.891
		배우자의 교육수준	-.032	.137	-.016	-.233
		가구소득	.240*	.104	.163	2.298
		여가활동에 대한 관여도	.721**	.235	.212	3.071
Model 2	여가활동에 대한 관여도가 여가활동을 하는 사회적 대인관계 동기에 미치는 영향#종속변수: 여가활동에 대한 감각적 동기	교육수준	.103*	.047	.154	2.391
		배우자의 교육수준	-.019	.043	-.029	-.448
		가구소득	.008	.033	.016	.243
		여가활동에 대한 관여도	.549**	.073	.480	7.494
Model 3	여가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여도가 여가활동을 하는 감각적 여가 동기를 매개로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종속변수: 여가만족도	교육수준	-.560**	.153	-.266	-3.663
		배우자의 교육수준	-.036	.137	-.019	-.266
		가구소득	.242*	.104	.165	2.316
		여가활동의 사회적 대인관계 동기	-.243	.236	.252	3.185
		여가활동에 대한 관여도	.855**	.236	-.082	-1.028

*p<.05, **p<.01

4.2.2. 가설검정 및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들의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징(교육수준, 배우자의 교육수준, 가구 소득수준)과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여가활동 관여정도, 기능성취적 동기, 대인관계적 동기, 감각적 동기가 여가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다. 분석과정에서 예상한 연구모형의 전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들의 여가만족도는 일반적인 한국사회 국민들의 여가행동과는 다른 경로를 통해 구현될 것이라는 연구자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중요성 인식에서 비롯되는 여가 관여도는 그 정도가 높으면 여가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그들이 추구하는 여가동기가 기존 내국인 거주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연구문제 아래에서 그 관계에 대한 계량 분석을 진행했다. 둘째,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단순히 여가관여도가 높을수록 여가만족도의 정도가 높아지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추구하는 여가동기가 기존 국내 국민들보다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을 했다. 즉 주로 비대칭적 지위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혼이주여성의 혼인 관계 특성상 그들의 여가활동은 국내 거주인과 다른 모습으로 진행될 것이며,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취적 여가활동이 연계되어야만 여가관여도가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졌다. 분석결과, 결혼 이주여성들이 여가활동에 대해서 중요하게 인식하는 관여도는 그들이 추구하는 가능성취적 여가활동 동기를 완전매개하여 여가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대인관계를 위한 여가활동과 감각지향적 여가활동 동기는 여가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더 심층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해준다. 기존의 이론적 관점과 계량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비판사회론적 입장에서 사회학적 해석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결혼이주여성들의 여가만족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가활동에 대한 관여정도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며, 그들이 추구하는 가능성취적 여가동기가 매개되어 실제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기존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들과 다른 방식의 여가활동을 추구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향유하는 여가의 개념 속에는 단순한 노동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여가활동과는 또 다른 의미의 사회심리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들의 여가활동은 통상적으로 자율성에 근거한 순수한 의미의 여가활동이라 보기 어려우며, 일상에서의 생존과 관련한 기능적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분석결과 그들 가구소득 역시 여가만족도를 높이는 주요 변수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문화사회학적으로 보았을 때, 결혼이주여성들의 여가활동 특성에 대한 소속집단, 또는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의 영향력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유입된 특정 사회구성원과 그들이 속한 소속집단 구성원간 사이의 정서적 유대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규범에 부합하는 임무를 충실하게 달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부 집단에서 이주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된 사회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준거집단의 문화적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다(Newcomb, 1943; Postmes, Spears & Cihangi, 2001). 새롭게 특정 집단에 포함된 사람들은 기존 구성원들의 집단사고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에서 일반적 의미의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특히 그 집단 정체감이 기존 구성원들에게 지나치게 큰 경우, 집단사고 현상이 집단에 소속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Janis, 1982). 더불어 집단 내에서의 사고과정에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과 편견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으로서의 정체감과 집단으로서의 정체감이 혼재되어 정서적 감정이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증폭 또는 축소되기도 한다(Blair, 2001; Taifel, 1978; Wyer, 2004).

즉 새로운 공동체에서 삶을 영위하게 된 결혼이주여성들은 새로운

한국사회에서의 문화에 포섭되기 위해서 기존에 자국 내에서 생활했던 한국인보다 더 큰 개인의 적응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 분석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은 노동영역에서는 물론이고, 그들의 사적 생활양식이라 할 수 있는 여가활동까지 자신들이 새롭게 정착한 소속 집단인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포함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준거집단은 이미 국내에서 단일민족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사회구성원이며, 따라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기 위해서 사적 영역인 여가활동까지도 기능성취적으로 운영해야만 하는 사회적 압력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적응 과정을 통해 변화된 삶의 공간에서 새로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적응된 개인 정체성의 내재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기능성취적 여가만족을 통해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기능적, 수단적 행위로서 여가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사회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집단 내 고정관념과 편견을 극복하고, 집단 구성원 간 체화되어 있는 사회화 기제들의 편향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앞서 논의한 이론적 논의 중 파커의 연구에 근거했을 때, 결혼이주여성들의 여가와 노동의 관계는 확장 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Parker, 1983). 즉 여가를 통해 다양한 동료관계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고받는 교환관계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사회배제계층으로서의 지위에서 이탈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현상은 앞서 고찰한 윌렌스키의 이론적 논의 중 일부가 지지된다. 즉 수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여가활동이 노동 영역과의 관계에서 상호침투하게 되고, 그 의사소통모델의 입장에서 노동에서의 박탈이 여가에서 재생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Willensky, 1960). 또한 이 같은 분석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여가의 성격이 앞서 챔폭스가 말한 상호침투노동지향적 여가활동 유형으

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Champoux, 1978), 그들의 자아 역시 여가경험보다는 노동경험에 더욱 일체감을 느끼고 있음을 암시해준다.

넷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여가가 단순히 여가행위자의 입장에서만 분석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 불평등, 복지, 사회적 고정관념, 편견과 같은 집단이나 조직으로부터 받는 영향력 아래에서 사회구조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다.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여가활동의 특성들은 계층에 따른 여가불평등 현상을 보여주는 사회적 사실이며, 앞서 살펴본 갓비(Godbey)가 논의한 소위 반여가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여가는 휴식, 오락, 인성계발이 안정적으로 담보되어야 하는 여가의 본원적 특성이 부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Dumazedier, 1967; Godbey, 1975). 결국, 사회에 내재된 문화적 영향력 속에서 계층 간 여가문화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가문화로 대표되는 거주 집단의 문화가 사회 각 개인의 삶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Godbey, 1975; Klapp, 1969; Touraine, 1974).

따라서 추후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여가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들의 여가활동 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책 대응을 구현시켜야 한다. 기능성취적 여가동기를 만족시킬만한 전형성을 지닌 여가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왜 그들이 기능성취적 여가동기에 입각하여 여가를 향유할 때 더 만족하게 되는지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비판사회론적 시각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연구들을 통해 한 사회 내 존재하는 여가불평등 현상을 유연하게 극복함으로써 일종의 사회적 배제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 구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고의 분석을 통해 여가행위자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여가활동 경로와는 다른 방식으로 여가만족도에 이르는 과정이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그 구조적 경로가 한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의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분석결과를 토대로 추후 결혼이주여성들의 여가만족도 향상을 통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 한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문화융합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연구의 함의: 지속가능한 문화융합사회의 정착 가능성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여가관여도는 여가만족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 둘째, 결혼이주여성들의 여가관여도는 그들의 기능성취적 여가동기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셋째, 앞선 분석결과를 토대로 그들의 기능성취적 여가활동 동기를 통제했을 경우, 여가활동에 대한 관여도가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사회 결혼이주여성들의 여가관여도가 기능성취적 여가동기를 완전매개하여 여가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대인관계적, 감각적 여가동기는 여가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고에서 논의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리할 수 있는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상술한 연구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여가활동에 대해 심도 있는 비판사회론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해준다. 여가와 같은 무형의 문화적 향유과정은 유형의 사회적 재화와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노동영역

에서 나타난 사회계층화 현상과 유사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일찍이 앤더슨(Anderson)이 주장한 바와 같이 현대사회의 주요 특징인 시장능력, 기술수준에 따른 여가활동의 분화, 계급 파편화 현상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Anderson, 1983). 이제 여가는 일반적인 노동자 계급이 경험하는 삶의 종속적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역할로도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기 쉬운 한 집단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사회적 배제 기제와 소외 현상이 영속되지 않도록 여가가 가진 기능을 수단적으로도 이용하기에 이른 것이다(Hargreaves, 1975). 사회구성원들의 여가활동은 그 문화적 특징에 따라 여러 기회의 자원 및 소유관계와 밀접한 상호 관련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Adorno & Horkheimer, 1979). 본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에서의 결혼이주여성의 여가만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그들의 일상적 노동영역 뿐 아니라 문화와 관련된 실제적인 사회안전망 확보가 정책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실제적인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세계화 시대의 도래를 맞이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외현되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정체성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에 대한 사회 공론과정이 국내에서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 소수자로 이루어진 구성원들의 새로운 불평등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여가활동으로부터의 배제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사회 정의(social justice)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문화융합적 변화에 부합하는 공공적 차원의 여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미래사회가 추구해야 할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가치는 인본주의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될 수 있다(서정일, 2016).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배려는 한 사회에서 광

범위한 대안적 문화융합 현상이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는 공공성이 담보가 된 사회 가치 및 행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교육, 소득 등의 불평등 기제들을 충분히 고려한 여가정책을 구현해내어야 한다. 더 나아가 산업사회에서부터 진행된 노동영역에서의 기능적 교육은 물론 사회구성원들의 사적인 생활영역이라 할 수 있는 여가활동과 관련된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들의 실존적인 측면에서의 생활문화적 기본권을 정책적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그들의 기본적인 삶의 영위과정에서 필요한 언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은 노동과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 모두를 아우르는 사회 요구가 실천되고 있는 제도적 지원과정 중 하나임에 틀림하다(정수진, 2011). 그리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구축된 사회 안전망은 생산영역에서의 지원 방안 도출 과정을 넘어 이문화(異文化) 구성원들의 사회 유입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소수자들의 소비영역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 시대적 요구의 흐름 속에서 국내에 거주하게 된 결혼이주여성 등의 새로운 여가정책 지원 범주에 대한 대안적 논의들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시간과 공간이 계층별로 분화된 타율적 영역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자율적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 공동체적 가치 실현을 구성원들 스스로가 독려할 수 있어야 한다(Gorz, 1982). 특히 광의의 여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적 정책들이 공공성에 근거하여 운영된다면 새로운 시공간으로 유입된 이문화(異文化) 구성원이 기존 집단의 주류문화로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다가온 문화융합현상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공동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본주의적 가치가 담보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영(2001). “도시주부의 생활체육 참여동기와 여가, 가사, 가족만족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0(4), 361-370.
- 김문겸(1993). *여가의 사회학*, 서울: 한울
- 김선영·장병주·이준(2007). “생태관광동기, 여가만족, 삶의 질의 영향관계 연구”, *관광연구* 22(2), 59-76.
- 김외숙·이기춘(1992).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 유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61-74.
- 김외숙·조희금·두경자(2000). *시간의 사용과 관리*, 서울: 교문사.
- 김우진(2016). “인성교육의 조건과 시민교육”, *문화와융합* 37(1), 289-316.
- 김은미·양옥경·이혜영(2009). *다문화 사회*, 한국, 서울: 나남.
- 민웅기(2002). “한국사회의 여가생활에 대한 사회구조적 고찰: 발달배경, 현황 및 대응방안”, *사회연구* 4, 43-65.
- 민웅기·김상학(2014).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의 여가제약이 여가활동 참여 및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여가관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8(5), 45-61.
- 서정일(2016). “문화융합의 기초로서의 인문고전 교육의 의미”, *문화와융합* 38(3), 39-65
- 박세혁(2009). “여가스포츠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들의 관여도, 만족도, 조직 충실도 간의 인과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3), 207-217.
- 윤재연·박종서(2013). “대학생의 여가관여도와 여가지속과의 관계에 대한 여가기능의 조절효과”,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7(2), 10-20.
- 이유리·박미석(2006).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여가제약, 여가동기, 여가참여의 관계: 구조방정식 모형 구축을 통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1-30.
- 정규엽·이창호(1998). “한국인 해외여행자의 동기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2(2), 503-510.
- 정수진(2011). “다문화 사회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방향”, *문화와융합* 33, 31-51.
- 조명환(1990). “여가행동에 있어서 자아관여이론 적용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2), 151-162.
- 채선애·한성열(2002). “여가활동, 여가동기, 자기효능감 및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

- 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7-31.
- 하지연(2005). “직장인의 자아개념과 여가기능, 몰입경험 및 여가스포츠 활동 관여도의 인과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4(1), 587-601.
- 황재연·한우진(2004). “경주스포츠 내장객들의 관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 동기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4(2), 475-484.
- Adorno, T. & Horkheimer, M. (1979). *Dialectic of Enlightenment* (Trans. J. Cumming), London: Verso.
- Anderson, P. (1983). *In the Tracks of Historical Materialism*, London: Verso.
- Antil, J. H. (1984). “Conceptualization and operationalization of involvement”,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1, 203-209.
- Beard, J. G. & Raghead, M. G. (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1), 20-33.
- Blair, I. V. (2001). Implicit stereotypes and prejudice, in G. B. Moskowitz (Ed.), *Cognitive social psychology: The Princeton symposium on the legacy and future of social cognition* (pp. 359-374), Mahwah, NJ: Erlbaum.
- Celsi, R. & Olson, J. (1988). “The role of involvement in attention and comprehension process”, *Th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5 (September), 210-224.
- Champoux, J. E. (1978). “Perception of work and non-work”, *Sociology of Work and Occupations* 5(4), 402-23.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Y: Plenum.
- Dimanche, F., Havitz, M. E., & Howard, D. R. (1991). “Testing the involvement profile (IP) scale in the context of selected recreational and touristic activiti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3, 51-61.
- Dumazedier, J. (1967). *Toward a Society of Leisure*, London: Collier-Macmillan.
- Frith, S. (1983). *Sound Effect: Youth, Leisure and the Politics of Rock'n'roll*, London: Constable.

- Gist, N. P. & Fava, S. F. (1964). *Urban Society*, New York: Crewell.
- Godbey, G. (1975). Anti-leisure and public recreation policy, in S. Parker, M. Ventris, J. Haworth, and M. Smith (Eds.), *Sports and leisure in contemporary society* (pp. 46-52), London: School of Environment, Polytechnic of Central London.
- Godbey, G., Crawford, D., & Shen, X. (2010). "Assessing hierarchical leisure constraints theory after two decad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2(1), 111-134.
- Gorz, A. (1982). *Farewell to the Working Class* (Trans. M. Sonenscher), London: Pluto Press.
- Hargreaves, J. (1975). The political economy of mass sport, in S. Parker, M. Ventris, J. Haworth, and M. Smith (Eds.), *Sports and leisure in contemporary society* (pp. 55-69), London: School of Environment, Polytechnic of Central London.
- Havitz, M. E. & Dimanche, F. (1999). "Leisure involvement revisited: Drive properties and paradox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1(2), 122-149.
- Hubbard, J. & Mannell, R. C. (2001). "Testing competing models of the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process in a corporate employee recreation setting", *Leisure Sciences* 23, 145-163.
- Iwasaki, Y. & Havitz, M. E. (1998). "A path analytic model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involvement, psychological commitment, and loyalt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0, 256-280.
- Kerstetter, D. L. & Kovich, G. M. (1997). "An involvement profile of division women's basketball spectators", *Journal of Sport Management* 11, 234-249.
- Klapp, O. (1969). *Collective Search for Identity*, New York: Holt, Rinehart.
- Kraus, R. (1971). *Recreation and Leisure in Modern Society*, New York: Appleton.
- Kyle, G. & Chick, G. E. (2002). "The social nature of leisure involvement",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4, 426-448.

Laurent, G. & Kapferer, J. N. (1985). "Measuring consumer involvement profil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2, 41-53.

Mannell, R. C. (1993). High-investment a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Committed, serious leisure, and flow activities, in J. R. Kelly (Ed.), *Activity and aging* (pp. 125-145), Newbury Park, CA: Sage.

McIntyre, N. & Pigram, J. J. (1992). "Recreation specialization reexamined: The case of vehicle-based campers", *Leisure Sciences* 14, 3-15.

Newcomb, T. M. (1943). *Personality and Social Change*, New York: Dryden Press.

Parker, S. (1983). *Leisure and Work*, London: Allen & Unwin.

Pieper, J. (1952). *Leisure the Basis of Culture*, New York: Pantheon Book.

Postmes, T., Spears, R., & Cihangir, S. (2001). "Quality of decision making and group nor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6), 918-930.

Rothschild, M. L. (1984). "Perspectives on involvement: Current problems and future direction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1, 216-217.

Shinew, K., Floyd, M., & Parry, D. (2004).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ace and leisure activities and constraints: Exploring an alternative framework", *Leisure Sciences* 26(2), 181-199.

Stodolska, M. (1998). "Assimilation and leisure constraints: Dynamics of constraints on leisure in immigrant populatio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0(4), 521-551.

Taifel, H. (1978).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Touraine, A. (1974). *The Post-industrial Society*, London: Wildwood House.

Vallerand, R. J. & Bissonnette, R. (1992). "Intrinsic, extrinsic and amotivational styles as predictors of behavior: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599-620.

Walker, G. J., Halpenny, E. A., & Deng, J. (2011). "Leisure satisfaction and acculturative stress: The case of Chinese-Canadian immigra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3(2), 226-245.

Willensky, H. J. (1960). "Work, careers and social integration",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4, 543-60.

Wyer, N. A. (2004). "Not all stereotypic biases are created equal: Evidence for a stereotype-disconfirming bia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 706-720.



【초록】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을 이루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여가활동이 어떤 사회문화적 특징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다. 조사 분석결과, 한국에 이주한 결혼이주여성들은 그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관여도가 높다고 해서 그 심리적 가치의 정도가 여가만족도의 증대로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반드시 기능성취적인 여가활동 동기가 매개되어야만 여가만족도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중요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여가와 노동이 완전히 단절될 수 없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특징을 알 수 있으며, 더불어 그들의 여가활동에 도구적 측면의 사회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현상은 원래 한국에서 태어나서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과는 다른 유형의 여가활동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현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들의 생활세계에 대한 국가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문화융합사회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그들의 삶에 대한 인본주의적 고찰에 기초한 사회적 공론 과정이 필요하다. 요컨대 이제 공공성에 입각한 정부의 여가정책 실천 과정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을 이루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본원적인 여가활동의 의미를 구현시킬 수 있도록 사회구조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결혼이주여성, 여가관여도, 기능성취적 여가동기, 여가만족, 사회불평등, 문화융합사회, 인본주의적 가치

〈Abstract〉

A Critical Analysis on Characteristics of Foreign
Immigrant Women in Leisure Activities
: A Humanistic Perspective for Entry into a Sustainable
Cultural Convergence Society

Min, Woong-Ki(Mokwon University) · Kim, Sanghag(Hanyang University)

The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of leisure activities of foreign immigrant women married to Koreans and their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and to offer a rationalization for the relationship. The result shows that foreign wives' leisure involvement has no direct impact on their leisure satisfaction, but they are more satisfied with leisure activities when the motivation of functional achievement is used as a parameter. It has significant sociocultural meanings that labor and leisure can not be separable to foreign wives from developing countries, and leisure activities have social impact on them unlike Koreans. Therefore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establish national policies concerning the life-world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order that a multi-cultural society can be establish well in Korea that is rapidly moving toward it. Especially, social discussion should be made from a humanistic perspective on the lives of multi-cultural families to enter a sustainable cultural convergence society. After all, the government needs to take structural approach, considering the publicness in making leisure policies to embody the original meaning of leisure for foreign women married to Koreans.

Key words: Foreign Immigrant woman, Leisure involvement, Motivation of functional achievement, Leisure satisfaction, Social inequality, Cultural convergence society, Humanistic value

이 논문은 2018년 5월 25일에 접수 완료되어 2018년 5월 3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8년 6월 1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

